

Woman보다는 Human을 생각하는 서울여자대학교

윤 경 은 서울여대 총장

1923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2회 총회에서 결의한 여성고등교육기관 설립의 꿈은 1961년 기독교 정신에 기초하여 지(智)·덕(德)·술(術)의 교육이념과 소수정예 교육을 목표로 하는 서울여자대학교의 출발로 실현되었다. 1965년에 96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로 서울여자대학교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실천적 훈련과 봉사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교육에 힘씀으로써 여성의 능력 개발과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는 데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개교 초기의 소수정예의 여성지도자 양성이라는 목표는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수정되어 현재 입학정원 1,690명, 5개 학부 35개 전공을 개설하고 있다. 1979년 대학원이 설립된 이래 21개 부문의 석사과정, 12개 부문의 박사과정이 개설되었으며 특수대학원으로 교육대학원,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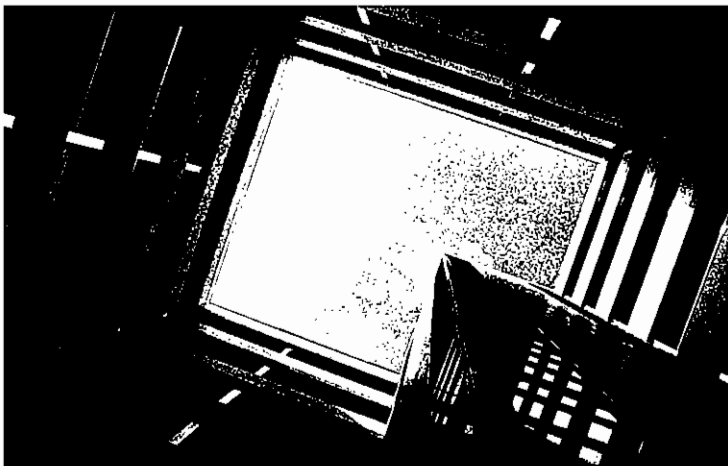
복지대학원, 기독교대학원이 있다.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을 성취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학부중심 여자대학교로 도약하며 세계적인 학부중심 명문대학으로 발전한다는 새로운 비전으로 2000년대를 맞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들이 수직적 평가의 틀 속에서 대학의 위상을 단계적으로 상승시켜 나가는 발전개념을 설정하는 것과 달리, 서울여자대학교는 특성화를 통하여 타대학과의 수평적인 차별화를 이루는 것으로 대학발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서울여자대학교는 여자대학, 기독교대학, 사회발전에

참여하는 교육중심 대학으로서의 특성화 방향을 인식하여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대학", "세계인을 키우는 대학", "실천하는 신앙인을 기르는 대학"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다.



1.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대학

“Woman의 아름다움 보다 Human의 아름다움을 일깨우는 새로운 시대의 여성”

21세기는 첨단기술의 발달과 정보화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문명의 풍요 속에서 비인간화와 인간소외현상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서울여자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바름교육, 교양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에 중점을 두는 전공교육을 긴밀한 유기적 구조 속에서 수행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다양한 인간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실현시켜 나가고자 한다.

본 대학의 역사가 곧 생활교육의 역사라고 표현될 정도로 생활교육은 개교 이래 현재까지 서울여자대학교의 정심교육과 실천적 교육의 중심 축이 되어 왔다. 생활교육은 공동생활을 통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협동정신으로 미래지향적인 여성 지도자 양성을 꿈꾸었던 초대학장 부름 고헤경 박사의 실천적인 교육철학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이제 생활교육은 '바름교육'이라는 새 이름으로 미래를 여는 새로운 교육내용을 담아, 비판적·창의적 사고, 능통한 의사소통, 성공적 대인 관계를 유도하는 진취적이며 실천적인 21세기의 여성의 자질을 지향한다.



학생들은 바름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가치관, 윤리의식, 잠재성을 발견하며, 환경변화를 신속히 인지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 또한, 미래에 일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현장감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살아있는 학습(Project-Based & Just-In-Time Education)을 함으로써 프로정신을 배우고 재학시절부터 현장 전문가와의 연결망(Professional Network)을 구축할 수 있다.

2. 세계인을 키우는 대학

“세계가 우리의 교실이다”라는 새로운 교육목표를 세우고 서울여자대학교는 세계 각국의 여러 우수한 대학들과 교류협정을 맺어 활발한 국제교류와 학문적, 문화적 유대를 긴밀히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학부 중심의 여자대학과 밀접한 교류를 추진하여 세계에 나아가서도 경쟁할 수 있는 여성 인력 배출을 추구한다. 협력 대학들과 학점이 인정되는 정규 유학생 교류 외에도 국제화 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1) SWELL (Seoul Women's University English Language License 영어 인증 프로그램)

본교가 제공하는 특수 영어 교육프로그램으로 '95년 12월부터 시작한 외국인 전담강사에 의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학기 중 48시간의 수업으로 구성된 프로그램과, 방학동안 6주간 캠퍼스 안에서 숙식하며 생활 속의 영어를 집중 훈련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2) 교류 협력프로그램

- 교환학생 파견 (Junior Year Abroad)
외국 협력대학에서 1년 동안 수학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수확한 학점이 인정된다. 1년 프로그램을 마친 학생에게는 교류대학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협정 양교에 파견하는 프로그램뿐 아니라 협정대학이 타국과 교류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한다.

- 서울여대에서의 인턴십(Internship at SWU)
교원협정에 따라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수학하여 학점 교차인정이 가능하며 외국학생에게도 인턴십 기회가 주어진다.



3)단기 협력프로그램(Short Term Collaboration)

단기 협력프로그램에는 문화연수(Cross-cultural Encounter)와 학술참여(Academic Participation) 프로그램이 있다.

문화연수로 일본의 Showha(昭和)여자대학(동경), Doshisha(同志社)여자대학(교토), 양교와 10일 동안 상대교에 교차 방문하여 연수에 참여한다.

학술참여 프로그램으로는 본교 의류학과와 Vladivostok State University of Economic과의 의상디자인 경연대회나 발표회에 참가하는 프로그램과 본교 미술대학과 캐나다의 말라스피나 대학이 3주간 상대교를 방문하여 공동작업을 하는 워크숍이 있다.

4)독창적인 국제교류, 바롬국제프로그램(Barom International Program : BIP)

BIP 프로그램은 외국인을 본교 캠퍼스로 불러 한국학을 강의하는 1개월 단기 교육프로그램이다. '99학년도 여름학기에 처음 시작되는 BIP에는 8개 외국자매대학에서 34명의 학생과 교수가 참가한다. 참가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하여 주는 이 프로그램은 '한국의 이해'라는 학과목으로 본교생도 참여하며 다매체를 통한 강의와 토론 중심으로 진행된다. 강의의 핵심은 비교문화와 국제교류이며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는 한국뿐 아니라 인접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비교연구도 가미되는 것이 특징이다.

3. 지식정보시대를 준비하는 대학

1)교육개혁 : '99학년도 교육개혁 추진 우수 대학 선정
서울여자대학교는 21세기에 필요한 지식교육을 실시하여 사회를 변화시키는 흐름에 합류할 수 있는 교육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98학년도 대학종합평가에서 4개 부문이 우수대학으로 인정받았으며, 대학원은 1개 부문에서 최우수 대학원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1999학년도 교육개혁 추진 평가에서는 '학생의 전공 선택권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부분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다. 교육개혁의 방향은 학생 중심의 열린교육체제의 확립과 학생진로(Career Development)를 위한 개별지도가 가능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을 두었다.

1학년에 입학하면서부터 자아 정체감 확립과 잠재력 탐색을 하는 바롬교육 I, 교양독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학과 지도교수, 학생생활연구소, 취업정보실, 바롬교육부가 유기적인 연결구조 속에서 체계적으로 학생지도를 한다.

2)교육환경

태능에 인접한 서울여자대학교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녹색환경을 가진 전원 속의 대학이다. 자연과 어우러져 있는 캠퍼스 어디에서나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젊음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환경이다. 외부 환경뿐 아니라 정보지식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

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서울여자대학교가 자랑하는 21세기의 바롬교육을 위하여 지상 10층, 연건평 3,997평의 초현대식 건물인 바롬교육센터가 개관되었고 최신식 A/V시설을 갖춘 국제회의실, 세미나실과 귀빈실이 구비됨으로써 각종 국제회의나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세계인의 품성을 교육하는 장으로 부족함이 없다.

정보사회를 대비하는 초고속 전산망 구축과 함께 시작한 가상강의가 자리를 잡았으며 영상강의실, 다매체교육지원센터는 새로운 교육방법을 다각적으로 시도할 수 있게 한다. 전산망의 구축은 교내의 행정전산화는 물론이려니와 정보통신부 주관 창업지원센터 선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2001년에 완공될 신 인문사회관의 언어교육실, 각종실험실, 세미나실 및 강의실은 멀티미디어 교육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게 될 것이다.

4. 특성화에 주력하는 대학

대학별, 학부, 전공별로 업적평가를 계속하여 경쟁력 있는 분야와 앞으로의 경쟁력이 예상되는 분야를 선택적으로 집중 지원 육성한다. 여자대학으로서의 특성과 본교의 인적자원을 고려하여 인간개발학부와 서비스경영부문을 집중 육성하고자 한다.

21세기에는 인간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므로 서울여자대학교는 우리 나라 최초로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개념을 도입한 학부체계를 세워 인간에 초점을 맞춘 특성화 분야를 개발, 확충해 나가 고자 한다. 또한 서비스산업이 중요한 산업이 되리라는 판단 아래, 여성 특유의 섬세한 감각과 뛰어난 직관력, 조화와 화합의 능력이 가치를 발휘할 분야인 서비스경영 분야를 발전시킬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